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나주시 가족축제’를 함께해요”

나주시 ‘2025 가정의 달’ 기념, 16일 ‘캠크닉’ 등 도심축제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6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가득한 ‘나주시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가족, 5월에 친해 봄! 함께 봄!’을 주제로 나주시립합창단 공연, 태극 전통춤, 행복(모범)가정상 유공자 표창과 10여 개의 체험(디지털&미디어버스, 수소로켓, 양말목 카네이션, 보틀랩 등)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체험부스에는 가족생애주기 ‘임산부&노인체험’이 눈길을 끈다. 이는 가족, 친구, 사회 모두가 알아야 할 가족 공감체험으로 단순한 이벤트성 체험의 의미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준비했다.

또한 기념식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골든벨’을 운영하고 늦은 오후에는 도심 속 캠크닉(캠핑+피크닉)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외 극장에서의 영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감상을 통해 추억과 재미가 함께하는 잊지 못할 가족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가족 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 나주시 가족축제에 대한 자세한 세부 일정은 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나주시 가족아동과(☎061-339-8482)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 군목(郡木)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

군민 의견 반영, ‘완도’ 지명 담은 희귀 수종 군목 지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郡木)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

군은 지난 2일 「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존 군목인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동백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사용해왔으나 전국 27개 시군의 군목도 동백나무임에 따라 완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완도에서 자생하고 ‘완도’라는 지명을 담은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1978년 국내 식물 학계의 권위자인故 민병갈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하여 국제학회에 보고된 나무이며, 독특한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사계절 푸른 녹색 잎과 빨간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은 대



표 난대 상록수종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뜻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를 의미한다.

완도군은 특색 있는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자 완도를 시가지 진입로(국도 77호선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거리를 조성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우리 군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종이다”면서 “완도의 지명이 명명된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완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자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

강진군 2톤 미만 지게차 농업용 기계로 지원 ‘호응’

“농업인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 줄일 것”

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증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 3년간 지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0대, 2023년 12대, 2024년 6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군비 1억5,800만원을 확보해 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농업용 지게차 2톤 이상 3톤 미만이었으며,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게차 운전자격

증 소지자였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강진군은 2톤 미만의 지게차도 농업용 기계로 인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저변 확대는 물론 지원 자격 역시 지게차 운전 자격증 미소지자로 넓힐 전망이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으로 2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 불필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축소를 넘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가정의 달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9일 무안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직자와 무안전통시장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동행축제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또는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은품(타포린백) 제공 ▲가격표시제 홍보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이다. /무안군 제공



장흥 유치면, 어버이날 찾아가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장흥군 유치면(면장 문정아)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지역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유치면에서는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의 지원으로 어버이날 기념식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지사장 이상일)와 유치면민회에서 선물을 후원하여, 각 가정과 대표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본 행사에는 새마을 부녀회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유치면 전 직원이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 어르신 한분 한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장흥군 제공



구례군, 어버이날 감사해 “효” 행사 추진

구례군은 지난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문화 확산 실천을 위해 감사해 “효”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읍면 실정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물케이크 등을 전달하며 사라져가는 지역사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식사를 배식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는데 직접 찾아와 선물도 주고 이야기를 나눠줘서 기억에 남을 어버이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